

기고

김정희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



세상을 바꾸는 주체는 바로 그대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 5월! 평창동계올림픽도 기대 이상의 호응과 성과를 거두고 끝이 난지 한참 지났고 65년간 휴전 상태였던 남과 북도 그 정상이 만나 전쟁의 끝이라는 종전을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그야말로 사방이 봄 봄이다.

지난 겨울 그토록 강렬한 추위를 경험하며 나는 봄이 오지 않을 줄만 알았는데 이제 정말 봄이 왔구나. 돌고 도는 것이 계절이고 겨울 지나면 찾아오는 게 봄이라지만 올해는 유난히도 봄 햇살이 반갑고 고맙다.

창밖의 연꽃빛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며 봄의 정취에 감탄하는 나를 깨우듯 사무실의 진화벨이 울린다. 예비후보자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박카스를 주고 있다는 제보전화다. 예비후보자는 버스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있는데 선거권 위반이 아니냐고 묻는다. 아, 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단속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공식선거법에서는 선거와 관련하여 음료를 한 병, 차 한 잔 태워주는 것도 기부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일단 나는 그 예비후보자를 사무실에 전화하여 그런 일을 실제로 했는지 묻는다. 그는 선거법에 위반되느냐, 위법인줄 몰랐다고

말한다. 난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니 하시면 안 된다 말하고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마치 술래잡기를 하는 것 같다.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서 순식간에 도망가는 예비후보자와 그를 잡으러 다니는 선관위 직원이다.

오는 6월 13일은 주민의 손으로 동네 일꾼을 뽑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본격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정치신인에게 일정범위 내에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고자 도입한 제도를 '예비후보자' 등록이 3월 2일부터 시작되었으니 벌써 2달이 넘었다. 하지만, 각 당의 지방선거용 주요 공약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엇갈린 신문기사가 말해주듯 선거일까지 아직 한 달여가 남아있어서인지 다행히도 심각한 위반행위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아니면 지난해 대통령의 탄핵과 제19대 대통령선거를 거치며 선거 기부행위에 대한 유권자나 정치인의 의식 수준도 높아진 걸까.

지방선거는 나와 내 가족의 삶과 직결되어있는 것들을 바꿔주고 해결해줄 사람들을 뽑는 생활민주주의선거다. 그렇다면, 지방선거가 처음부터 동네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었을까? 1949년 7월 4일에 지방자치법이 처음 제정되었지만 당시 이승만 정권은 지방선거의 실시를 온갖 이유로 미루다가 자신의 정

치적 목적을 위해 1952년 2월 갑자기 최초의 지방선거를 실시하였다. 대통령의 정책을 민의로 포장해줄 전국적인 기관인 도시읍면이라는 지방의회가 필요했던 정권이 '직통으로 민의를 확인해보자'며 실시했던 것이 최초의 지방선거였던 것이다. 1960년 12월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함께 선출했으나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지자체장은 중앙정부의 임명제로 전환되고 만다. 1987년 민주화 이후인 1991년에야 30년만의 지방의원 선거가 다시 실시되면서 지방선거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다.

생활 속의 선거가 되었기에 선거법에 관해 묻는 전화를 받는 것이 내 일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큰절을 하는 그림을 현수막과 명함에 넣어도 되나?'고 예비후보자가 묻는다. '손가락 하트 사진을 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다급하기까지 하다. 표를 얻기 위해 온갖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고, 가슴 졸이고 있는 수많은 후보자들을 바라본다. 지방선거는 한 종류의

선거가 아니다. 도지사와 군수, 도의원과 군의원을 선출하고 여기에 지방의원 정당 투표 두 종류와 사립스쿨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까지 뽑는 무려 7가지의 선거다. 투표소에 들어가서 7장의 투표용지에 있는 각 후보자 이름을 몰려라미 바라보다가 찍기 놀이를 하고 나올 것인가? 선거의 주인공은 후보자나 정당이나 유권자다. 주민의식을 가진 유권자의 투표가 선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지난 많은 선거에서 경험했다.

내가 살고, 일하고, 머물고 있는 우리 동네, 우리 고장, 우리 지역을 성심을 다해 돌볼 '준비된' 후보가 좋겠지.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똑똑한 후보는 어떨까, 똑똑하지 않아도 순발력 있게 일처리를 해낼 수 있는 후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순발력이 없어도 모르면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후보, 나는 이런 사람을 선택하겠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다행이다. 아직 선거가 한 달여 남아 있다는 것이, 우리 유권자는 그 한 달 동안 어떤 사람을 골라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국가와 후보자가 제공하는 정보도 많지만, 후보자의 평소 자질을 통해서 참된 일꾼을 알아보고 뽑는 것은 민주시민사회의 주인, 유권자의 몫이 아닐까?

2018년 올해는 우리 민족이 역사상 처음으로 '주권'을 행사한 5·10총선거가 있는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쉽게 절망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세상은 아름답다'라는 티비 앵커의 말을 되뇌어본다. 국회의원선거일만 말하고 투쟁할 일이 아니다. 세상을 바꾸는 주체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이 다. 그대가 지역세상을 바꾸는 주체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

社說

소방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소방당국은 불과 두 달 전까지 하루 100여 건씩 쏟아지는 이런 생활안전 신고에 일일이 구급대원들을 보내 민원사항을 처리해 왔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119 신고를 위험 정도에 따라 '긴급', '비긴급'으로 나눠 출동 여부를 판단하는 '생활안전 출동기준'을 실시한 결과, 관련 출동횟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생활안전 출동기준을 적용한 3~4월 두 달간 경기도 내 생활안전 분야 신고 출동횟수는 1천4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천246건)에 비해 79.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문 개방 출동은 지난해 1천618회에 비해 올해는 59회로 96.3%나 줄었고, 나무에 올라간 고양이 구해달라는 등의 동물구조 요청은 지난해 4천855회에서 올해 1천50회 출동해

78.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변화는 긴급전화인 119로 걸려온 단순 민원성 신고를 비긴급 일반민원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국민콜 110으로 넘긴 데 따른 결과다.

실제로 같은 기간 접수된 3천662건의 신고 중 58.6%인 2천148건은 110 등 타 기관으로 이첩됐다.

정부는 2007년 각 기관 신고전화 통합한 110을 신설하며 비긴급 신고사항은 110을 재난 긴급사항은 119를 사용하도록 기능을 세분화했다. 119에서 민원출동을 할 경우 정작 출동을 다루는 긴급신고에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불편한 상황에 다급한 마음을 갖는 건 이해하지만, 신고전화의 용도가 나뉘어 있는 만큼 긴급신고는 119를, 비긴급신고는 110을 이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한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言辭安定

言辭安定

▷ 뜻: 태도(態度)만 침착(沈着)할 뿐 아니라 말도 안정(安定)케 하며 쓸데없는 말을 삼간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화재예방, 안전수칙 지키는게 최선

가정과 직장에서 제일 쉽게 쓸 수 있는 소방설비는 '소화기'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하는 데 가장 유용하다.

그러기 위해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놓아야 한다. 화장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이나 30도 이상의 더

운 공간은 금물이다. 녹이 슬거나 소화분말이 굳어져 분사가 어려울 수 있다. 정기적으로 제조일자를 확인해 10년마다 교체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화재 때 전기가 끊기는 일도 흔하다. 연기 탓에 조명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다. 평소 '파난유도등'의 녹색불을 가장 밝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다. 파난유도등은 반드시 비상구와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빠른 대피를 위해 비상구 앞과 장애물을 놓아도 안 된다.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옥내 소화전'이 화재 진압에 중요하다. 일

반인도 소화전으로 불을 끌 수도 있다. 그래서 소화전 주변에 사용 설명서를 비치해 놓아야 한다. 호스도 꼬여 있으면 안 된다.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확산을 막기 위한 '방화문' 관리도 중요하다. 항상 닫혀 있어야 하는 기본. 신속한 대피를 위해 대피 방향으로 열리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희창 / 화순소방서 소방교

湖南新聞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details.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Large advertisement for 'Korea's Happiness'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featuring a woman and a man, with text about mutual respect and social harmony.